

# 淸陰 金尙憲 上疏文의 특징과 설득전략

김하윤\*

## || 차례 ||

- I. 서론
- II. 청음 상소문의 개관과 형식적 특징
- III. 청음 상소문의 설득전략
- IV.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청음 김상헌 上疏文의 창작배경과 특징, 그에 나타난 설득전략에 대한 연구이다. 청음의 疏筭은 모두 140편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차자보다는 정제된 완성미를 갖춘 상소문만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고찰하였다.

청음은 1624년부터 卒年인 1652년까지 모두 71편의 상소문을 올렸으며, 1652년 마지막 상소문인 遺疏를 올릴 때까지 諫臣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상소문의 형식적 특징으로는 두사에서 2편만 ‘臣’, ‘負罪臣’의 형식을 보이고, 나머지는 모두 ‘伏以’로 시작하였다. 결사도 3편만 尤不勝惶恐戰灼之至, ‘以副至意’, ‘喜不自勝也’로 끝났고 나머지는 모두 ‘謹昧死以聞’으로 끝나 ‘두사-결사’의 형식이 95% 이상 동일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당대 主和派이며 상소문에도 능통한 지친 최명길과는 다른 차이점을 보였으며, 청음이 사용한 이러한 형식은 19세기까지도 이어졌음을 『疏筭輯要』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청음 상소문의 설득전략은 먼저 君臣之義를 강조하고 典故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설득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군신지의의 강조는 조선왕조 사회에서의 가장 확실한 설득전략이기도 하였고, 선현들의 고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주장을 확고히 하기도 하였다.

\* 배재대학교 기초교양교육부 조교수.

또한 자신의 주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경한 비유와 어조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고, 설득의 정당성과 무게감을 높이려고도 하였다. 상소의 성격상 辭職疏에서는 상대적으로 강경한 어조가 덜하고, 請願疏나 時弊疏에서 강경한 어조를 띠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청음은 사직소에서 강인한 志節을 느낄 정도로 강한 비유나 어조로써 자신의 생각을 설득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주제어 : 청음 김상헌, 상소문, 설득전략, 군신지의, 비유, 강경한 어조

## I. 서론

조선시대 500년 동안 관료문인부터 일반 儒生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公論을 표출하는 下情上達의 방식은 上訴가 유일하다. 더불어 봉건적 질서가 존재했던 조선사회에서는 上行文字로서의 上疏文이 절대군주와의 상하 소통 및 言路의 확장 측면에서 가장 많이 창작된 산문 문체라 할 수 있다. 이는 逼真한 리얼리즘적 성격의 상소문이 한문학의 문체로 엄연히 자리잡게 되었고, 해당 시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1)</sup>

淸陰 金尙憲(1570-1652)은 안동 김문의 관료문인으로 排淸主義의 상징이자 斥和派의 영수이다. 그는 조선후기 國家大義인 北伐論의 기초를 놓아 국민의 자존심과 정신력을 키우는 국가지도 이념을 창출·실천한 인물이기도 하다.<sup>2)</sup>

병자호란은 17세기 동아시아의 판도 변화와 대의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1) 이민홍, 『한문화와 한문학의 정체성』, 집문당, 2003, pp.292-295.

2) 정옥자, 『정조의 수상록 일득록 연구』, 일지사, 2001, p.15.

고뇌하는 지식인들의 갈등을 불러왔고, 청음 개인에게도 절의와 지조의 인물로 각인되는 커다란 사건이었다. 김상헌의 절의에 대해서 正祖(1777-1800)는 魯仲連과 伯夷·叔齊에,<sup>3)</sup> 桐溪 鄭蘊(1569-1641)은 蘇武와 洪皓에 빗대었고,<sup>4)</sup> 潛谷 金堉(1580-1658)도 중국과 오랑캐들이 청음의 절개에 모두 놀랐다고 극찬하였다.<sup>5)</sup> 아울러 청음은 당대 산문창작을 전범으로 하는 秦漢古文派의 명맥을 이어간 文衡으로 칭송되기도 하였다. 청음의 문학에 대해 南克寬(1689-1714)은 청음이 시와 문장까지 겸비한 문인이라고 칭송하였고<sup>6)</sup>, 그의 시문은 청나라 문장가인 王士禛(1634-1711)의 『感舊集』에도 실릴 정도였다.<sup>7)</sup>

청음에 대한 연구는 크게 역사적 관점<sup>8)</sup>과 문학적 시각<sup>9)</sup>에서 연구되어

3) 『弘齋全書』권171, 『일득록』11, <인물>1, “金淸陰道學之正, 節義之高, 不獨我國之所尊慕, 抑亦淸人之所敬服, 則文章特其餘事耳, 予於稱道時, 不曰故相, 曰先正者此也, 向來致祭文中, 其文韓曾, 其學濂洛云者, 指道學文章也, 東海之水, 西山之薇, 舉以酌卿, 淸標是似云者, 指節義也.”

4) 『桐溪集』권3, 『玉堂筭略』, “固是聖朝之欠事, 而尙憲又不幸遭意外之變, 拘囚六年, 艱苦萬狀, 而抗節不屈, 彼亦起敬, 雖蘇武之北海, 洪皓之冷山, 無以過此.”

5) 『潛谷遺稿』권9, 『祭淸陰先生文』, “先生大節, 驚震華夷.”

6) 『夢嚙集』권, 『端居日記』, “王·李之波東漸, 學詩而兼文者, 相數者, 專學文者, 月汀·玄軒·淸陰·汾西·東淮·春沼·息菴也, 谿谷亦略有染焉, 兩金輩後出, 轉點, 稍聞中土之論, 頗諱淵源, 要不出其圈櫪也.”

7) 『靑莊館全書』권63, 『天涯知己書』, <筆談>, “淸陰先生, 水路朝京時, 與張甚好, 張爲刻朝天錄而序之, 淸陰集亦載之, 阮亭池北偶談, 詳言之, 且抄載淸陰佳句數十, 盛言格品之矣, 阮亭又晚年, 輯明末淸初故老詩, 爲感舊集八卷, 起虞山錢謙益, 止其兄考功郎王士禛, 淸陰詩亦入.” 『感舊集』에 실린 청음의 시는 『청음집』권9, <朝天錄>에 있는 『曉發平島』이다.

8) 오수창, 『역사의 라이벌 최명길과 김상헌』, 『역사비평』42집, 역사비평사, 1998. ; 지두환, 『청음 김상헌의 생애와 사상-春秋大義論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24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2.

9) 하진규, 『청음 김상헌의 생애와 문학』,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조명주, <설교수창집>을 통해 본 청음 김상헌의 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왔다. 역사적 측면에서는 節操와 義理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문학적 측면에서도 시에 투영된 節義의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반해 산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다.<sup>10)</sup> 이는 청음이 지닌 절의와 지조의 상징성이 시문학으로 표출되는 양상이 두드러졌기에 나타난 결과라 보이지만, 청음의 문학성을 가늠할 수 있는 산문문학도 조명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면에서 상소문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논리적·효과적으로 전개하여 격식에 맞춰서 쓴 글이기 때문에 청음의 다양한 산문을 일별하는데 제격이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청음의 소차류 산문 중에서 상소문에만 주목하기로 한다. 상소와 차자가 言官이 임금에게 上書하는 면에서 거의 비슷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는 있지만, 상소는 頭辭부터 온전한 격식을 갖추어 上行해야만 한다. 더불어 앞뒤의 의례적인 부분은 생략하고 본문만을 제시한 차자보다는 상소가 더욱 정제된 형식을 갖췄다는 측면에서도 상소문의 형식적 특징을 연구하는데 더욱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이에 먼저 청음의 71개 상소문에 나타난 창작 배경과 형식적인 특징들을 개관해 보기로 하고, 다음으로 상소문 本辭에서 보이는 설득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sup>12)</sup>

---

; 성범중, 『청음 김상헌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9집, 한국한시학회, 2005.; 황만기, 『청음 김상헌 <朝天錄> 고찰-한시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43집, 한국한문학회, 2009.; 황만기, 『청음 김상헌 시문학에 나타난 의리정신』,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황만기, 『안동 체류기에 있어서 청음 김상헌의 활동과 문학』, 『국학연구』20집, 한국국학진흥원, 2012.; 김하운, 『淸陰 金尙憲의 漢詩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김하운, 『金尙憲 漢詩에 사용된 ‘惆悵’의 쓰임새 고찰』, 『어문연구』78집, 어문연구학회, 2013.

10) 김하운, 『청음 김상헌의 疏箭 고찰』, 『어문연구』72집, 어문연구학회, 2012.

11) 소차의 유형과 형식적 특징은 김현정, 『崔鳴吉 疏箭의 서술기법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p.6-25 참조.

12) 본고는 『淸陰集』, 한국문집총간 권77과 김상헌 지음·정선용 옮김, 『國譯 淸陰集』, 민족문화추진회, 2008을 자료로 하고, 필자의 의견과 상이한 부분은 수정·보완하였다.

## II. 청음 상소문의 개관과 형식적 특징

상소문은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奏議類 산문의 일종으로, 上書·奏筭·奏疏·奏議·表狀·書疏·筭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왔다.<sup>13)</sup> 하지만 이들이 지닌 의미가 모두 비슷하기에 현대는 일반적으로 상소문이라 통칭되고 있다.

조선사회의 수직적 질서 속에서 신하가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고 왕의 신뢰와 동의를 구하는 것은 신하의 安危와도 관련이 있다. 신하는 좀 더 나은 사회질서와 통치를 위해서 충심으로 諫言을 하고, 임금은 授賞非罪를 약속한다고 하더라도 상소를 올린 신하는 위협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고자 하는 완벽한 설득력만이 신하의 의도를 군주에게 오롯이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청음은 1624년부터 卒年인 1652년까지 모두 71편의 상소를 올렸다. 1596년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통례원 引儀로 出仕하였고, 1601년에 제주 安撫御使로 6개월 동안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제주 五賢<sup>14)</sup>으로 칭송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북파와의 대립과 정치적 혼란 속에 진퇴를 반복하고 고향에 은거하는 등 1622년까지는 자신의 뜻을 온전히 펴지 못하는 시기였다. 이후 1623년 仁祖反正이 일어나자 1624년에 起復하라

13) 吳訥, 『文章辨體序說』, 『奏疏』, 인민문학출판사, 1998, “按唐虞禹臯陳謨之後, 至商伊尹, 周姬公遂有伊訓, 無逸等篇, 此文辭告君之始也, 漢高惠時, 未聞有以書陳事者, 迨乎孝文, 開廣言路, 於是賈山獻至言, 賈誼上政事疏, 自時厥後, 進言者日衆, 或曰上疏, 或曰上書, 或曰奏筭, 或曰奏狀, 慮有宣泄, 則囊封以進, 謂曰封事, 考之於史可見矣.”

14) 제주 五賢은 제주도 기념물 제1호로, 제주도에 유배왔거나 부임하여 제주의 敎學 발전에 기여한 다섯 분(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 청음 김상헌, 동계 정온, 우암 송시열)을 말한다.

는 임금의 명이 있었으나 喪制를 다 마치기를 원하는 상소를 올렸고,<sup>15)</sup> 상을 마친 이해 6월에 이조 참의에 발탁되었다. 이때부터 君德과 治道를 바라는 신하의 강직함을 보여주었고, 서인 淸西派의 領袖가 되면서 지조와 절의로서의 청음이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하였다.<sup>16)</sup> 이후 정묘호란(1627)과 병자호란(1636)을 겪으며,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려다가 심양에 6년 동안 엮매이는 등 수많은 浮沈과 屈曲 속에서도 자신의 의리정신을 올곧게 지켜나갔다. 1652년 청음은 마지막으로 올린 상소문에서 임금은 초심을 잃지 말고 어질고 착한 이를 등용하여 훌륭한 왕업을 넓히려는 諫臣으로서의 마지막 부탁도 잊지 않았다.<sup>17)</sup>

상소문의 구성방식은 크게 ‘頭辭-本辭-結辭’<sup>18)</sup>로 나눌 수가 있는데, 두사와 결사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다. 또한 상소문의 내용을 단정적으로 구분하기도 어렵고, 상소의 종류에 따라 내용의 상

15) 『淸陰集』 권17, 「乞終喪制疏」.

16) 『仁祖實錄』 인조2년(1624) 8월 28일 기사에 보면 “김상헌은 사람됨이 단정하고 깨끗하며 인동이 절도에 맞고 안팎이 순수하고 발라서 精金이나 美玉과 같았으므로 바라보면 凜然하여 사람들이 감히 사사로운 뜻으로 범하지 못하였고, 문장도 굳세고 뛰어나며 고상하고 오묘하여 옛 글 짓는 법에 가까웠다. 조정에서 벼슬한 이래로 처신이 구차하지 않고 악을 원수처럼 미워하였기 때문에 여러 번 배척당하였으나, 利害와 禍福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광해 때에는 폐기되어 田野에 있었는데, 反正한 처음에는 喪中이었기 때문에 곧 등용되지 못했다가 상을 마치자 맨 먼저 이조 참의에 除拜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諫長에 제배되니, 사람들이 다 그 풍채를 사모하였다”고 하였다.(이하 『조선왕조실록』의 인용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본을 참고로 한다.)

17) 『淸陰集』 권22, 「遺疏」, “伏望殿下, 益礪初服之志, 不替好賢之誠, 登進善類, 以出治道, 克修實德, 以恢大業.”

18) 상소문의 구성방식을 오인환·이규완은 「상소의 설득구조에 관한 연구:시무상소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7권, 한국언론학회, 2003에서 ‘도입부-전개부-종결부’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19세기에 간행된 『疏筭輯要』의 「疏書筭凡例」에 나타난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頭辭-本辭-結辭’로 칭하기로 한다.

이함을 보이기는 하지만,<sup>19)</sup> 일반적으로 상소문의 구성방식을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표1〉 상소문의 구성방식

구성	주제	구체적 내용
頭辭	*임금에 대한 칭송과 관습적 투식	*자신의 관직과 신분을 소개 *임금의 은혜와 은덕에 감사 *자신의 不敏함과 건강악화, 능력부족을 반성
本辭	*상소를 올리게 된 배경	*상소를 올린 배경, 당위성 강조 *국정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 *위정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자세
結辭	*본사에 대한 제차 강조와 청원	*본사에서 언급한 상소의 내용을 거듭 강조, 부탁 *상소를 올리게 된 자기 죄 반성 *절박한 심정과 선처를 호소

청음 상소문에서도 頭辭와 結辭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위의 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두사에서는 보통 임금에 대한 감사와 자신을 보호해 주신 은덕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의례적·상투적으로 가볍게 시작한다.<sup>20)</sup> 현재 자신이 있기까지는 모두 임금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국정을 보살필 수 없다는 것과 자신의 不敏함과 능력부족을 이유로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본사에서는 상소문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보일 수 있겠지만, 거시적 관점으로 보면 국정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신하로서 상소를 올릴 수밖에 없는

19) 김세철·김영재, 『조선시대의 언론통화』(커뮤니케이션북스, 2000.)에서는 상소를 내용별로 '①辭職疏(辭疏), ②時弊疏(時務疏), ③請願疏, ④諫諍訴, ⑤彈劾疏, ⑥論事疏, ⑦辨誣疏'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20) 원칙적으로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문에서는 자신의 관직과 신분, 상소를 올린 날짜까지도 상세하게 기록을 하지만, 개인 문집에 수록한 상소문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생략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이다.

당위성을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사에서는 본사에서 언급한 내용을 절박한 심정으로 재차 부탁하면서 상소를 올리게 된 처지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죄를 반성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바탕으로 청음 상소문에 보이는 두사와 결사의 형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청음 상소문의 '두사-결사'형식

제목	작성시기	頭辭	結辭
乞終喪制疏	1624(인조2)	伏以	謹昧死以聞
吏曹參議辭免疏	1624(인조2)	伏以	謹昧死以聞
吏曹參議辭免疏	1624(인조2)	伏以	謹昧死以聞
改葬時乞解官疏	1624(인조2)	臣	謹昧死以聞
論時弊疏	1625(인조3)	伏以	謹昧死以聞
都承旨辭免疏	1625(인조3)	伏以	謹昧死以聞
都承旨辭免後疏	1625(인조3)	伏以	謹昧死以聞
兵曹參判辭免疏	1625(인조3)	伏以	謹昧死以聞
副提學辭免乞退再疏	1625(인조3)	伏以	謹昧死以聞
赴京回還後賞加辭免疏	1627(인조5)	伏以	謹昧死以聞
都承旨病重乞遞疏	1627(인조5)	伏以	謹昧死以聞
乞暇沐浴疏	1627(인조5)	伏以	謹昧死以聞
請代受前都憲李顯英譴罷之罪疏	1627(인조5)	伏以	尤不勝惶恐戰灼之至
副提學辭免疏	1628(인조6)	伏以	謹昧死以聞
都承旨辭免疏	1628(인조6)	伏以	謹昧死以聞
都承旨辭免上疏	1628(인조6)	伏以	謹昧死以聞
都承旨辭免疏	1629(인조7)	伏以	謹昧死以聞
都承旨辭免再疏	1629(인조7)	伏以	謹昧死以聞
兼帶辭免仍乞退歸疏	1630(인조8)	伏以	謹昧死以聞
兼帶辭免疏	1630(인조8)	伏以	謹昧死以聞
弘文提學辭免疏	1630(인조8)	伏以	謹昧死以聞
兼帶提學同知成均辭免疏	1631(인조9)	伏以	謹昧死以聞
都承旨辭免疏	1631(인조9)	伏以	謹昧死以聞

辭都憲疏	1633(인조11)	伏以	謹味死以聞
辭都憲疏[再疏]	1633(인조11)	伏以	謹味死以聞
乞解兼帶疏	1634(인조12)	伏以	謹味死以聞
乞解大司憲及兼帶疏	1635(인조13)	伏以	謹味死以聞
乞解大司憲及兼帶疏[再疏]	1635(인조13)	伏以	謹味死以聞
乞解大司憲及兼帶疏[三疏]	1635(인조13)	伏以	謹味死以聞
大司憲辭免疏	1635(인조13)	伏以	謹味死以聞
大司憲辭免疏[再疏]	1635(인조13)	伏以	謹味死以聞
大司憲三告加由後辭免疏	1635(인조13)	伏以	謹味死以聞
廉謹玷選懇乞削名疏	1636(인조14)	伏以	謹味死以聞
吏曹判書三告加由後辭職乞退疏	1636(인조14)	伏以	謹味死以聞
南漢扈從賞加辭免疏	1637(인조15)	伏以	謹味死以聞
請勿助兵潘陽疏	1639(인조17)	負罪臣	謹味死以聞
謝賜御札貂裘疏	1640(인조18)	伏以	以副至意
到灣上後聯名疏	1642(인조20)	伏以	喜不自勝也
到門外陳情退歸疏	1645(인조23)	伏以	謹味死以聞
陳情疏	1645(인조23)	伏以	謹味死以聞
辭左議政疏	1646(인조24)	伏以	謹味死以聞
辭左議政疏[再疏]	1646(인조24)	伏以	謹味死以聞
辭左議政疏[三疏]	1646(인조24)	伏以	謹味死以聞
退歸石室後待罪疏	1646(인조24)	伏以	謹味死以聞
辭職疏	1647(인조25)	伏以	謹味死以聞
辭職疏	1647(인조25)	伏以	謹味死以聞
辭職疏	1648(인조26)	伏以	謹味死以聞
病中蒙賜藥物謝恩疏	1648(인조26)	伏以	謹味死以聞
兼帶社稷都提調辭疏	1648(인조26)	伏以	謹味死以聞
社稷署都提調辭免疏	1649(인조27)	伏以	謹味死以聞
病未趨名待罪疏	1649(인조27)	伏以	謹味死以聞
入京待罪疏	1649(인조27)	伏以	謹味死以聞
請還收肩輿入闕之命疏	1649(인조27)	伏以	謹味死以聞
不能檢下請遞社稷都提調疏	1649(인조27)	伏以	謹味死以聞
病未陪往山陵辭職疏	1649(인조27)	伏以	謹味死以聞
老病乞骸疏	1649(인조27)	伏以	謹味死以聞
乞暇掃墳疏	1649(인조27)	伏以	謹味死以聞

病中陳情疏	1650(효종1)	伏以	謹昧死以聞
辭祿疏	1650(효종1)	伏以	謹昧死以聞
乞骸疏	1650(효종1)	伏以	謹昧死以聞
病未詣闕待罪疏	1650(효종1)	伏以	謹昧死以聞
請遞本職及兼帶還收給祿之命疏	1650(효종1)	伏以	謹昧死以聞
辭祿疏	1650(효종1)	伏以	謹昧死以聞
乞致仕疏	1650(효종1)	伏以	謹昧死以聞
乞致仕疏[再疏]	1650(효종1)	伏以	謹昧死以聞
陵幸還宮後辭職疏	1650(효종1)	伏以	謹昧死以聞
辭職疏	1650(효종1)	伏以	謹昧死以聞
請鐫削職名疏	1651(효종2)	伏以	謹昧死以聞
辭退疏	1651(효종2)	伏以	謹昧死以聞
陳情辭職疏	1651(효종2)	伏以	謹昧死以聞
遺疏	1652(효종3)	伏以	謹昧死以聞

<표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71편의 상소문 중에서 2편의 상소문만 ‘臣’, ‘負罪臣’의 형식으로 두사를 시작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伏以’로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결사도 3편의 상소문에서만 ‘尤不勝惶恐戰灼之至’, ‘以副至意’, ‘喜不自勝也’로 끝났고, 나머지는 모두 ‘謹昧死以聞’으로 마무리하여 95% 이상이 동일한 형식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식은 19세기 후반에 쓰인 『疏筭輯要』에 보이는 두사의 ‘伏以’, 결사의 ‘謹昧死以聞’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더불어 위에 제시한 71편의 상소문은 왕이 下敎하여 求言한 상소문이 아니라 모두 청음 자신이 신하로서 자발적 의사로 올린 상소문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동시대 주화과의 거두인 遲川 崔鳴吉(1586-1647)<sup>21)</sup>의 상소문에

21) 『弘齋全書』권173, 『日得錄』13, <인물>3에 보면, 조선에서 상소문에 가장 관심을 보인 임금은 正祖이다. 그리고 정조는 지친 최명길의 상소문을 “최명길도 연석에서 아될 때에는 우물우물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다가 물러가 소차를 올리면 두루 통창하여 막히는 것이 없었다(崔鳴吉筵奏, 吃吃不出口, 而及退陳疏筭, 曲暢旁通)”라며 최

서는 이와는 달리 상소문 결사 부분에 ‘取進止’로 마무리하여 청음과 상이한 형식을 보이고 있다.<sup>22)</sup> ‘取進止’는 보통 上疏보다는 劄子의 결사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식이다. 청음도 차자에서는 ‘取進止’를 주로 사용했지만, 상소문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소문과 차자에서 청음이 주로 사용한 ‘두사-결사’의 이러한 형식은 조선후기까지 기본 형식이 되어 이어져 왔다.<sup>23)</sup>

청음은 당대의 일반적 원칙을 준수하여 상소문에서 두사와 결사에 ‘伏以-謹昧死以聞’의 형식을 기본적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형식에서 벗어난 몇 개의 상소문들은 내용이 긴박하고, 상황이나 정세가 심각하여 의례적 투식을 지킬 여유도 없이 바로 자신의 간곡한 심정을 나타내야만 했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1646년부터 卒年까지 약 7년 동안은 매년 다량의 사직상소문이 이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出仕 초반에 보였던 의례적 형식의 거절이 아니라 노년에 쇠약한 기력과 1648년에 얻은 병<sup>24)</sup>으로 인하여 더 이상 국정을 논할 수도 없다는 판단으로 나온 진심의 표현이라 생각한다.

다음은 청음 상소문의 본사를 중심으로 임금을 향한 설득전략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명길이가 상소문에 능통함을 칭찬하였다.

22) 김현정, 『崔鳴吉 疏劄의 서술기법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p.25-26.

23) 청음의 劄子도 두사와 결사의 형식을 보면, 모두 69편 중에서 두사는 67편이 ‘伏以’로 시작하였고, 2편만 ‘臣’으로 시작하였다. 결사도 92%에 해당하는 64편을 ‘取進止’의 형식으로 마무리하였고, 나머지 5편만 ‘謹昧死以聞’(3편), ‘愚臣幸甚’, ‘死罪死罪’ 등으로 끝을 맺었다.

24) 청음 연보에 보면 승정21년 무자(1648, 인조26), 당시 79세로 병이 나자 내의에게 명하여 병세를 살펴보게 하였고, 상소를 올려서 사정을 진달하였다고 하였다.

### Ⅲ. 청음 상소문의 설득 전략

#### 1. 君臣之義의 강조와 典故의 효과적 運用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上行文書로, 왕조사회 관각문학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상소문은 당대 현실을 여실히 반영해주는 문학장르이다. 신하는 자신의 의도대로 임금이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의도가 깔려 있으며, 군신이라는 수직적 신분관계 속에서 설득의 주체인 임금에게 신하된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 문장은 상소를 올리는 신하로서의 청음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나라의 군주가 사직을 위해 죽으면 따라 죽는 것이 신하의 의리이다. 심지어 원수를 떠맡들면서 상국을 범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극력 간쟁하고, 간쟁했는데도 쓰이지 않으면 물러나 자결하는 것도 역시 신하의 의리이다. 옛 사람의 말에, “신하는 임금에 대해서 그 의리를 따르는 것이지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으니, 사군자가 벼슬길에 나아감과 벼슬길에서 물러남은 어찌 일정하랴만 오직 의리를 따를 뿐이다. 예의를 돌보지 않고 오직 명령대로만 따르는 것은 바로 아녀자나 내시들의 충성이지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의리가 아니다.<sup>25)</sup>

군신 간에 맺어진 의리는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신하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군신 간에 의리를 지켜 죽음도 불사하겠다<sup>26)</sup>는 선택은 충

25) 『南漢紀略』, <豊岳問答>, 신해진, 박이정, 2012, pp.55-56, “國君死社稷, 則從死者, 臣子之義也, 如至於奉仇讐而犯上國, 則極言爭之, 爭而不用, 則退而自靖, 亦臣子之義也, 古人有言, 臣之於君, 從其義, 不從其令, 士君子出處進退, 何常, 惟義之歸, 不顧禮義, 惟令是從者, 乃婦寺之忠, 非人臣事君之義也.”

26) 『청음집』권19, 『乞解大司憲及兼帶疏[三疏]』, “人臣分義, 死且不辭.”

신으로서 당연하다. 한낱 자신의 안위와 건강을 빌미삼아 保身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자신의 충정을 알아만 준다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 것[士爲知己者死]’처럼 청음이 상소를 올릴 때 임하는 마음가짐을 읽을 수 있다. 다음의 상소문은 微物과의 비교를 통해 군신지의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신이 나름대로 생각해 보건대, 생명이 있는 만물은 각각 性靈을 타고나는 법이라서 벌레나 뱀조차도 은혜에 감사하여 오히려 덕을 갚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신하로서 임금을 섬기는 의리가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몸이 부서지고 뼈가 가루가 되어도 오히려 꺼리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정성과 충성을 다하는 일을 어찌 감히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sup>27)</sup>

인간을 비롯한 모든 禽獸蟲蛇들은 자신만의 性靈을 지니고 태어난다. 미물인 벌레나 뱀조차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性情들을 잘 다스려서 남에게 받은 은덕을 갚는 법이다. 蟲蛇도 그러한데 하물며 신하된 자로서 임금을 끝까지 섬기고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의리라는 것이다. 한낱 미물과의 대비를 통해 청음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정성과 충성을 다하겠다고 역설하고 있다.

무릇 사대부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름답고 밝은 시대를 만나 임금의 인정을 받아 자신이 평소에 쌓아 온 바를 펼친다는 것은 천년에 한 번 정도나 만날 수 있는 놓쳐서는 안 될 좋은 기회입니다. 신이 비록 어리석고 몽매하며 누추하고 졸렬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바가 없기는 하지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27) 『청음집』권17, 『論時弊疏』, “臣竊自念, 萬物群生, 各賦性靈, 蟲蛇感恩, 尙思報德, 以臣事主, 其義曷極, 糜身粉骨, 猶且不憚, 罄忱殫誠, 其何敢緩.”

후한 봉록을 받아 자신의 몸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人情이 몹시 바라는 것인데, 신이 유독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신은 10년 이래로 지나치게 총애하여 발탁해 주심을 입었기에 항상 죽어서도 보은하기로 마음먹으면서 어렵고 험난함을 피하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어찌 하여 오늘날에 와서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저버린 채 사사로이 신 한 몸만을 편안히 할 계획을 하여, 스스로 산림 속에서 고상하게 살던 사람의 자취에 비기려고 하겠습니까.<sup>28)</sup>

1635년 8월에 대사헌 사면을 요구하기 위해 재차 올린 사직상소문이다. 당시는 청음이 66세로 淸平山을 유람하고 석실에 내려와 은거해 있던 시기였다.

하늘이 맺어준 天倫이 부자기간이라면, 군신의 관계는 의리로 맺은 인연[父子天合, 君臣義合]이라고 할 수 있다. 청음도 부자간에는 가르치면 되지만, 군신 간에는 의리가 위주이므로 바르지 못하면 내쳐야 된다고 하였다.<sup>29)</sup> 자식이 부모에게 하지 못할 말이 없는 것처럼 신하도 또한 임금에게 숨길 것이 없는 것이다.<sup>30)</sup> 청음은 신하로서 聖君을 만나 자신의 기량을 펼쳐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千載一遇에 해당하는 좋은 기회이고 죽어서라도 보은하겠다는 마음가짐을 통해 군신간의 의리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청음은 주장의 극대화를 위해 典故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

28) 『청음집』권19, 『大司憲辭免疏[再疏]』, “夫士之生世, 遭遇休明, 受知君父, 展布素蘊, 此千載一時, 不可失之嘉會也, 臣雖愚駘陋拙, 無可裨益, 至於處高位享厚祿, 以榮其軀者, 人情之大欲, 臣獨何心, 不願於此乎, 況臣十餘年來, 濫被寵擢, 常期殞結, 不避艱險, 豈於今日, 負其初心, 私便身圖, 自擬於山林高蹈之迹乎.”

29) 『청음집』권17, 『副提學辭免乞退再疏』, “父子主恩, 故子有不善之事, 教之而已, 君臣主義, 故臣有不正之心, 已之而已, 安有知其不正, 而以義相合之理乎.”

30) 『청음집』권19, 『乞解大司憲及兼帶疏[再疏]』, “第念天地覆載, 萬物生成, 日月垂明, 幽隱畢照, 子之於父, 何情之不達, 臣之於君, 何事之敢隱.”

다.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전고는 자신의 말에 신뢰감과 안정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前例의 고사를 제시해 신뢰성을 확보하면 임금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현인 孔孟의 말을 빌면 자신의 주장에 더욱더 무게감을 더해줄 수도 있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자기 집에 거처하고 있더라도 말을 하는 것이 착하지 않으면 천리의 밖에서도 비난하는 법이다. 그런데 하물며 가까운 곳에서라.”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고 전부 다 고치기를 도모해, 아랫사람들을 성심으로 대하고 강직한 말을 포용해 받아들이시어, 조정 안에서 말로 인해 죄를 얻는 선비가 없게 하소서.<sup>31)</sup>

청음은 조정에서 충언으로 간하는 선비들이 죄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부탁하며 『周易』에 나온 공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sup>32)</sup> 言行은 오랫동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군자는 언행을 신중하게 해야만 한다. 군자의 말이 선하면 천리 밖에서도 호응하는 법이니, 임금은 가까이 있는 신하들의 말을 성심으로 포용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예부터 나라를 망치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신하들의 諫言을 거부하는 데에서 비롯하였다. 言路가 열리고 막힘에 따라 나라의 흥망이 결정되었으니,<sup>33)</sup> 임금은 꼭 막혀버린 耳目을 열어 충언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해 줄 것을 부탁

31) 『청음집』권19, 『乞解大司憲及兼帶疏[三疏]』, “孔子曰君子居其室, 出言不善, 千里之外違之, 況其邇者乎, 殿下於此, 三復致思, 翻然改圖, 誠心遇下, 容受讜言, 朝廷之上, 無以言獲罪之士.”

32) 『周易』, <繫辭傳>上, 제8장, “子曰, 君子居其室, 出其言善, 則千里之外應之, 況其邇者乎? 居其室, 出其言不善, 則千里之外違之, 況其邇者乎? 言出乎身, 加乎民, 行發乎邇, 見乎遠, 言行, 君子之樞機. 樞機之發, 榮辱之主也, 言行, 君子之所以動天地也, 可不慎乎?”

33) 『栗谷全書』권3, <陳弭災五策筭>, “言路開塞, 興亡所係.”

한 것이다.

신은 삼가 견여를 타고 대궐로 들어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송나라 조정에서 文彦博을 대우했던 고사입니다. 潞國公은 네 조정을 잇달아 섬긴 원로로서 나이가 90에 가까워 행동이 불편하였기에 이러한 특별 예우를 받았던 것으로, 朝野가 놀라는 눈으로 바라본 바이고, 史籍에 드물게 전해지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신이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이런 예를 받는단 말입니까.<sup>34)</sup>

1649년 6월, 당시 청음이 80세의 나이에 올린 상소문이다. 이해 인조대 왕이 賓天하고 효종대왕이 왕위를 이었는데, 효종은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원로 대신들의 경험이 필요했다. 그래서 효종은 몸이 불편한 청음에게 가마라도 타고 입궁하라고 권한다.<sup>35)</sup> 이에 청음은 송나라 재상 文彦博의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문언박은 송나라 정치가로, 50년 동안 네 왕조(인종, 영종, 신종, 철종)를 歷仕하면서 將相의 위치에 올라 이민족에게까지 명성을 떨친 인물이다. 그러므로 송나라 철종은 노쇠하여 몸이 불편한 문언박이 입궐할 수 있도록 가마를 보내 예우한 것이라고 하였다.<sup>36)</sup> 하지만 청음은 문언박과 같은 예우를 받을 인물이 못 된다면서 문언박의 고사를 끌어와 그와의 대조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효율적으로

34) 『청음집』권22, 「請還收肩輿入闕之命疏」, “臣伏承肩輿趨闕之命, 此宋朝待文彦博古事, 潞公以四朝元老, 年迫九耄, 不良於行, 膺此異數, 朝野之所聳觀, 史籍之所罕傳, 臣是何人, 敢當此禮.”

35) 『孝宗實錄』, 卽位年(1649) 5月 14日, “憲府啓曰: 領敦寧金尙憲, 今之大老也, 嗣服之初, 宜在朝廷, 凡典禮, 政令之可疑者, 有所考問, 卿士大夫亦有所矜式, 請特諭勉留, 以示敬賢好德之誠, 答曰: 孤意誠亦如此, 而敬賢之誠, 未孚於人, 恐不得留之也, 特遣承旨, 諭孤至意.”

36) 『古今事文類聚新集』권2, <獨班減拜>, “元祐元年四月, 詔守太師致仕文彦博赴闕, 獨班起居減拜肩輿, 至下馬處, 子弟一人扶掖出入, 儀制依見任宰臣.”

피력하였다.

신의 형 金尙容이 현재 經筵領事로 있는데, 唐宋의 고사에 대신의 자제는 臺閣에 나란히 있을 수 없으며, 간혹 있더라도 스스로 상소를 올려 체차해 주기를 요청하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中宗 때에도 金正國이 世子副賓客에 임명되자 그의 형 金安國이 먼저 빈객이 되었다는 이유로 상소를 올려 사임하였는데, 곧바로 체차를 허락하였습니다.<sup>37)</sup>

1635년에 대사헌 및 겸대하고 있는 직임의 해임을 청하는 상소문이다. 청음은 당시 양주 石室에 머물러 있었는데, 병세가 중하여 직임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이에 청음은 해임을 청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나라 侍中 張文瓘(606-678)과 김안국 형제의 고사를 활용하고 있다. 청음은 장문관의 형 문종도 호부시랑에 있었는데 형제가 대각에 나란히 있을 수 없다고 한 고사<sup>38)</sup>와 1629년 김안국(1478-1543), 김정국(1485-1541) 형제가 나란히 賓客이 됐을 때 교체된 사실을 근거로 들어 允許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청음은 상소문에서 자신의 주장을 堅持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군신 간의 의리를 강조하였다. 이는 조선왕조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확실한 설득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현들의 고사를 효과적으로 인용하는 것도 자신의 주장을 더욱 확고하게 할 수 있는

37) 『청음집』 권19, 『乞解大司憲及兼帶疏』, “且臣之兄尙容方爲經筵領事, 自唐宋故事, 大臣子弟, 不得並居臺閣間, 或有之, 靡不陳巧自免, 亦粵我中廟朝, 金正國爲世子副賓客, 以其兄安國先爲賓客, 上疏辭避, 卽許遞改.”

38) 『舊唐書』 권85, 『張文瓘列傳』, “張文瓘, 貝州武城人, 大業末徙家魏州之昌樂, 瓘幼孤事母兄以孝友聞, 貞觀初, 舉明經補并州參軍, 時英國公李勣爲長史深禮之, 累遷水部員外郎, 時兄文琮爲戶部侍郎, 舊制兄弟不許並居臺閣, 遂出爲雲陽令.”

基底가 되기도 하였다.

## 2. 강경한 比喻와 語調 구사

상소문에서 신하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군신의 의리를 중요시하거나, 선현의 故事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완곡한 방법이 임금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부족했다면, 좀 더 설득력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강경한 비유나 어조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는 모두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마지막이면서도 최선의 방법일 수가 있는 것이다.

천지 부모와 같은 신성상께서 다시 살려 주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몹시 늙은 나이의 다 죽어 가던 목숨이 어찌 마른 풀이 이슬과 비를 맞아 살아나듯이 썩었던 살에서 새살이 다시 돌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신은 머지않아 죽을 사람으로서, 살아서는 성대한 덕에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sup>39)</sup>

1648년 청음은 당시 79세로 병이 나서 상소를 올렸고, 인조가 內醫에게 명하여 병세를 살필 수 있도록 하였다. 위 상소는 병중에 약물을 하사해 주신 것에 대한 사은상소문이다. 비록 성은에 감사하는 상소문이지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비유의 강경함이 나타남을 파악할 수 있다. 청음은 점점 위중해 가던 자신의 목숨을 생명력이 다해 죽어버린 풀에 비유하여 병세의 심각함을 표현하였다. 자신의 병든 목숨을 ‘마른 풀[枯蕘]’에, 임금의 은혜를 ‘비와 이슬[雨露]’에 비유하여 병세가 호전되어 감을 표현한 것이다. 자신의 아픈 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글은 다음에서도 확

39) 『청음집』권21, 『病中蒙賜藥物謝恩疏』, “若非天地父母再生之恩, 篤老之年, 垂盡之命, 安能如枯蕘之逢雨露, 委穢之還肌肉也, 臣朝夕之人, 生無以報盛德.”

인할 수 있다.

노쇠한 나이의 기력이 날로 점차 시들어 가서 병석에 누운 채 얼마다 모두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고 있으며, 숨은 겨우 붙어 있으나 인사를 살피지 못하는바, 실로 말라죽은 나무나 싸늘하게 식은 재나 흙덩어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sup>40)</sup>

효종대왕 원년(1650)에 임금이 山陵에 幸行하였는데,<sup>41)</sup> 청음은 병세가 악화되어 참석하지 못했다. 이를 계기로 영돈녕부사와 사역원의 도제조 직임을 사직하는 상소를 올린 것이다. 청음의 몸은 점점 노쇠하여 병석에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숨만 쉬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人事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자신의 몸을 생명력이 없는 말라죽은 나무(枯木)와 싸늘한 재나 흙덩어리(死灰土壤)에 비유하였다. ‘枯’와 ‘死’가 청음이 처한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음은 자신의 생각을 오롯이 전달하고자 강경한 어조를 구사하였다. 단호하고 강경한 어조는 자신의 의견 표명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절대군주인 왕의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상소의 정당성과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을 확보하는 것이

40) 『청음집』권22, 『陵幸還宮後辭職疏』, “衰年氣力, 日漸柴毀, 委身床席, 事事須人, 喘息雖存, 不省人事, 實與枯木死灰土壤無異.”

41) 『효종실록』에 보면, 효종 즉위년(1649) 9월 14일 기사에 “효종이 인종의 長陵(인조의 능)에 가려고 하였다. 청음을 비롯한 조정에서는 선조조 이후로 황제의 관을 발인할 때 시종하던 예가 없어졌고, 거리도 너무 멀고, 날짜가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이에 청음도 “청건대 발인할 때에 교외에서 哭送하고, 현궁을 내리는 날 친히 산릉에 가시어 지극한 정을 펴소서.”라고 하니 상이 따랐다”고 하였다. 이달 20일에 인종의 장례를 지냈는데, 청음은 ‘병으로 산릉에 배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사직소 [病未陪往山陵辭職疏]와 효종이 ‘능에 幸行하는 것을 중지하기를 요청하는 차재[請寢陵幸筭]’를 올리기도 하였다.

매우 중요하다. 정당한 상소에는 상을 주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죄를 묻지 않겠다는 受賞非罪의 약속이 수반되어야 신하로서의 자유로운 言路가 보장되는 것이다. 청음은 言官으로서 임금의 꾸지람을 받기도 했지만,<sup>42)</sup> 그래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는 않았다.

근래에 또 길에 떠도는 소문을 듣건대, 조정에서 北使의 말에 따라 장차 오천 명의 군병을 징발하여 심양이 大明을 침범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그 말을 듣고 놀랍고 의심스러워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서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무릇 신하가 군주에 대해서도 따를 수 있는 일이 있고 따를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중략)...

그런데 어찌하여 가면 갈수록 더 미약해져 일마다 순순히 따르기만 하면서 끝내 하지 못하는 바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줄이야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예로부터 죽지 않는 사람이 없고 또한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는데, 죽고 망하는 것은 참을 수가 있어도 반역을 따르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sup>43)</sup>

1639년에 후금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반대하는 상소문이다. 병자호란 이후 후금은 명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우리 군사를 보내라고 협박하였다. 당시 조정의 분위기는 후금의 부탁을 들어주어 화를 면하길 바랐지만, 청음은 명나라에 대한 명분과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신하로서 따를 수 있는 일과 따를 수 없는 일이 있기에, 지금의 파병문제는 반역과도

42) 『청음집』권18, 『兼帶辭免仍乞退歸疏』, “而第念臣頃忝言地, 妄言是非, 未回天聽, 只厪嚴教, 平生慕直, 終得不正之名, 據事論人, 反爲挾憾之歸.”

43) 『청음집』권21, 『請勿助兵瀋陽疏』, “近日又聞道路言, 朝廷從北使之言, 將發兵五千, 助瀋陽犯大明, 臣聞之驚惑未定, 不以爲然, 夫臣之於主, 亦有可從不可從;...(中略)…豈意愈往愈微, 事事曲從, 終至於無所不至之地乎, 自古無不死之人, 亦無不亡之國, 死亡可忍, 從逆不可爲也.”

같은 일이라서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목숨이 다할지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청음 자신의 주장을 강경하게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쇠파리처럼 앵앵거리면서 이익을 구하는 그들의 작태는 환히 드러나서 가릴 수가 없으며 추잡하여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마음을 쓴다면 장차 무슨 짓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등창을 빨고 치질을 핏는 것이나 임금을 시해하고 아버지를 시해하는 것은 모두가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생각을 가진 비루한 자들이나 한다는 것은 성현께서 이미 말씀하셨는 바, 신의 망녕된 견해는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상께서는 이에 그들의 말을 충직하다고 하면서 가상하게 여겼으니, 신은 몹시 의혹스럽습니다.<sup>44)</sup>

1625년 陸性善과 柳碩은 宗班들을 거느리고 仁穆大妃의 폐모론 문제로 귀양 간 仁城君 珙이 죄가 없다는 상소를 올려 조정에 알력을 넣었다. 이에 분개한 김상헌은 10월에 홍문관 부제학에 제수되었지만, 차자를 올려 石室에 물러나 있었다. 이 상소문은 11월에 遞差될 때 다시 올린 상소문이다.

인조의 庇護를 받고 있었던 인성군 공을 목성선과 유석까지 죄가 없으니 放免하라는 상소를 올리자, 청음은 이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한 어조로 성토했고 있다. 그들의 행태는 쇠파리가 앵앵거리는 모습처럼 추잡하여 볼 수가 없고, 종기의 고름을 빨고 치질을 핏는 짓도 할 무리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오로지 이해득실만을 따져서 부모나 임금까지 시해할 정도의 비루한 인간들인데도 이들의 말만 믿고 충직하다고 여기는 임금의 뜻이 의혹스럽다고까지 하였다. 자신의 이익과 권세만을 위해 윗사람에

44) 『청음집』권17, 『副提學辭免乞退再疏』, “其營營求利之態, 昭不可掩, 醜不可言, 若此用心, 將何所不至也, 吮癰舐痔, 弑父與君, 皆原於鄙夫得失之一念者, 聖賢已言之, 臣之妄見, 適出於此, 而聖明乃以忠直嘉獎, 臣竊惑焉.”

게 아침하는 嘗糞之徒의 무리들을 ‘쇠파리가 리를 추구하는 모양[營營]’, ‘고름을 빨고 치질을 핥는 무리[吮癰舐痔]’로 강력히 빗대어서 설득력을 강화하고 있다.

#### IV. 결론

상소문은 왕조시대 산문문학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당대 현실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문예장르이다. 『한비자』의 『說難』편에서 말한 ‘군주를 달래는 데도 적절한 기술이 필요하며 逆鱗을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말처럼, 신하가 임금에게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유와 전략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고도의 설득전략 때문에 문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상소문의 가치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음의 疏筭은 모두 140편으로, 그 중에서 상소문은 71편에 해당하여 상소와 차자가 거의 대등한 비율로 지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청음의 71편의 상소문에서 두사는 2편만 ‘臣’, ‘負罪臣’의 형식을 보이고, 나머지 69편은 모두 ‘伏以’로 시작하였다. 결사도 3편만 ‘尤不勝惶恐戰灼之至’, ‘以副至意’, ‘喜不自勝也’로 끝났고 나머지는 모두 ‘謹昧死以聞’으로 끝나 95% 이상의 동일한 형식이 쓰이고 있었다. 동시대 主和派인 최명길의 상소문 결사에서는 청음과는 달리 ‘取進止’의 형식을 보였는데, 이는 상소문보다는 차자에서 주로 사용되는 형식이었다. 청음이 사용한 두사와 결사의 형식은 19세기 『疏筭輯要』에서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청음이 사용했던 형식이 조선 후기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소문이 임금을 설득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문학 장르와는 다르

게 엄정하고 명료한 문체와 사리에 맞는 논리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청음이 내건 설득전략은 먼저 君臣之義를 강조하고 典故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였다. 조선왕조 사회에서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절대적이므로, 의리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한 것이다. 또한 자신의 논리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선현들의 고사를 인용하여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 설득전략의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강경한 비유와 어조를 구사한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철해야 한다는 목적론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강경한 비유나 어조로써 설득의 정당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상소의 성격상 辭職疏에서는 상대적으로 강경한 어조가 덜하고, 請願疏나 時弊疏에서 강경한 어조를 띠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청음은 사직소에서도 강인한 志節을 느낄 정도로 강한 비유나 어조로써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음이 올린 다수의 상소문이 모두 청음의 요구대로 결과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는 당대 정치현실과도 맞물린 문제이므로 한 개인의 충정으로 바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청음이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논리적인 방식과 전략을 가지고 군주를 설득하려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이 쌓여서 조선시대 문인들이 자신의 사상과 주장을 개진해 나가는 설득전략으로서의 글쓰기 기법을 체계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周易』, 『古今事文類聚新集』, 『舊唐書』.  
김 욱, 『潛谷遺稿』.  
남극관, 『夢嚙集』.  
오 늘, 『文章辨體序說』.  
이덕무, 『靑莊館全書』.  
이 이, 『栗谷全書』.  
정 온, 『桐溪集』.  
정 조, 『弘齋全書』.  
『朝鮮王朝實錄』(<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 2. 논문 및 단행본

- 金尙憲, 『淸陰集』, 한국문집총간 77권, 민족문화추진회, 1997.  
金尙憲 지음·정선용 옮김, 『國譯 淸陰集』, 민족문화추진회, 2008.  
김세철·김영재, 『조선시대의 언론문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김하운, 『청음 김상헌의 疏筭 고찰』, 『어문연구』72집, 어문연구학회, 2012.  
\_\_\_\_\_, 『청음 김상헌의 漢詩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김현정, 『崔鳴吉 疏筭의 서술기법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p.6-26.  
설석규, 『조선시대 유생상소와 공론정치』, 선인, 2002.  
송혁기, 『사직상소문의 문학적 연구를 위한 일고』, 『한국한문학회연구』48집, 한국한문학회, 2011, pp.147-148.  
신두환, 『선비, 왕을 꾸짖다』, 달과소, 2011.  
신해진, 『南漢紀略』, 박이정, 2012, pp.55-56.  
오인환·이규완, 『상소의 설득구조에 관한 연구-시무상소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7권, 한국언론학회, 2003.  
이민홍, 『한문화와 한문학의 정체성』, 집문당, 2003, pp.292-295.  
정옥자, 『정조의 수상록 일득록 연구』, 일지사, 2001, p.15.

**Abstract**

The Speciality and persuasion strategy of  
Cheongeum Kim Sang-Hyeon's public appeals

Kim, Ha-Yun

Public appeals are kinds of writing which vassals report to king, it shows the most realistic literary style on Dynasty. Public appeals is selected to receivers, and should have maximal formality in terms of vassals. Also, Vassals need high standard of writing skills as they persuade their king with those officials involved in realistic issues and contemporary national. Therefore, only few prominent writers have many public officials who can make perfect sentences and can have their own justification.

Chunum Kim Sanghun(1570~1652) had wrote 71 public appeals from 1624 to 1652. All of Those appeals followed contemporary public appeals' general standard, some of appeals which are out of principle showed his own emotional feeling on urgent serious situation during that moment. The persuasion strategy of Chungum's officials that is the genre reflected on contemporary reality is intended to make the change of their king's mind or their act.

So Chungum focused on justification and objectification about his opinions, stressed the importance of loyalty between the king and his servants as a way to persuasion, strengthened his thought by having the quotation for the old posts. Through that importance of loyalty and old posts, he heightened the persuasive.

Moreover it showed commitment of persuading his king(receiver) and changing several issues in a right way by having extreme figure of speech and tough tone. That is dependent why Chungum is stamped as a symbolic figure of the section and constancy through second manchu invasion of Korea on 17<sup>th</sup> century.

Key Word : Cheongeum Kim Sang-Hyeon, Persuasion Strategy, the relations of sovereign and subject, extreme figure of speech, tough tone

김하윤

소속 : 배재대학교 기초교양교육부 조교수

전자우편 : kiwi4474@pcu.ac.kr

이 논문은 2015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5년 8월 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8월 10일 게재 확정됨.